



2023 IMPACT REPOR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Brian
Impact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한국사회가치평가
KOREA SOCIAL VALUE ASSESSMENT

2023 IMPACT REPORT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 행 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 행 일 2024년 4월

발 행 인 박승기

이 메 일 contact@brianimpact.org

홈 페이지 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기부 선언과 함께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과학 기술 영역에서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1
02	공감 소개	5
	▶ 공감 is	6
	▶ 활동 연혁	7
	▶ 조직 구성	8
03	임팩트 프레임워크	11
	▶ 공감의 공익법 활동	12
	▶ 공감의 임팩트 프레임워크	14
04	임팩트 측정 결과	19
	▶ 임팩트 하이라이트	20
	▶ 공익법 활동 임팩트	22
	▶ 공익법 확산 임팩트	48
05	미래비전	61
	부록 1. 주요 소송 사례	65
	부록 2. 인터뷰	73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 **임팩트 리포트 소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임팩트 리포트는 공익인권 영역에서의 공감의 활동과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공감이 가지는 차별점과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공감의 공익인권 활동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임팩트 모델로 나타내고 사회의 변화를 정량, 정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여 이를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팩트 측정 전문기관인 한국사회가치평가와 함께 임팩트 정의와 측정,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리포트에 담긴 공감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기초하여 연구하였습니다.

✓ **2019년~2023년 동안의 성과 측정**

최근 5년의 사업·활동 성과를 분석하여 담았습니다.

✓ **사업·활동 전략에 기반한 임팩트 모델 도출**

법률지원, 제도개선,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 네가지 방향의 성과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활동이 만든 실질적인 변화를 성과로 측정**

각 사업·활동의 산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변화(Outcome-Impact)를 살펴보았습니다.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

성과에 따라 수치, 비율 등을 사용하는 정량적 방법과 설문, 서술, 도표 등의 정성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02 공감 소개

- ▶ 공감 is
- ▶ 활동 연혁
- ▶ 조직 구성



> 공감 is

소수자의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확장,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 법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범주가 특정 사회의 상황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쉽게 예상치 못한 어느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이용 거부로 인한 시각장애인,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환자,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홀리스, 국가가 살포한 고엽제의 민간인 피해자 등. 그러나 이들이 받은 피해의 정도는 어디에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도 미흡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 스스로 피해범위와 가해대상을 찾아 피해 복구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긴 회복과정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뛰어들기엔 더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감은 이들이 당당하게 피해복구를 위한 문을 두드리길 바라며 삶의 현장, 그리고 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자,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는 누구나 수임료 걱정없이 공감을 찾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 역시 법률자문, 소송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한 개인의 공간, 노동자의 일터, 거리의 농성현장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현장에 함께 자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법의 언어로 우리 사회에 전달합니다. 개개인의 소수가 모여 한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사회에 드러나서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경계의 선을 흐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감은 존재하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도록 희망하며 활동합니다. 이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가 일상이 되어버린 구체적인 삶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보호받지 못한 쓰린 모습이 구석구석 드러날 것이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 활동 연혁

2024

•공감 20주년

2022

•재난팀 구성

2020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당신과 함께 생각하는 세계인권선언문' 기획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1대 센터장 취임)

2018

•제1회 공감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개최

2015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업무협약

2013

•**(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판

•2013 변호사 파견사업 재개

2011

•청소년 인권 강좌 실시

2009

•로스쿨 실무수습 시작
(매년 여름, 겨울 2회 진행,
2024년 동계 실무수습까지 총 31회 진행)

2007

•희망변론 프로젝트 시작
(공익단체 법률지원, 법률교육, 공익소송)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2004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활동 시작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총 48개 단체 파견)

•이주민인권·여성인권·장애인권·빈곤과복지 팀 구성

2023

•공감 - FLA(외국법자문사협회) 공동주최 국가정황정보
리서치 결과 보고대회

2021

•김이수 3대 이사장 취임

•공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ECOSOC) 확정

2019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
(외국변호사 대상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진행

•국제인권센터 발족

2016

•전수안 2대 이사장 취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1대 센터장 취임)

2014

•제1차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2024년까지 총 21명의 변호사 지원)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주최

2012

•안경환 1대 이사장 취임

2010

•노동팀, 성소수자 인권팀 구성

2008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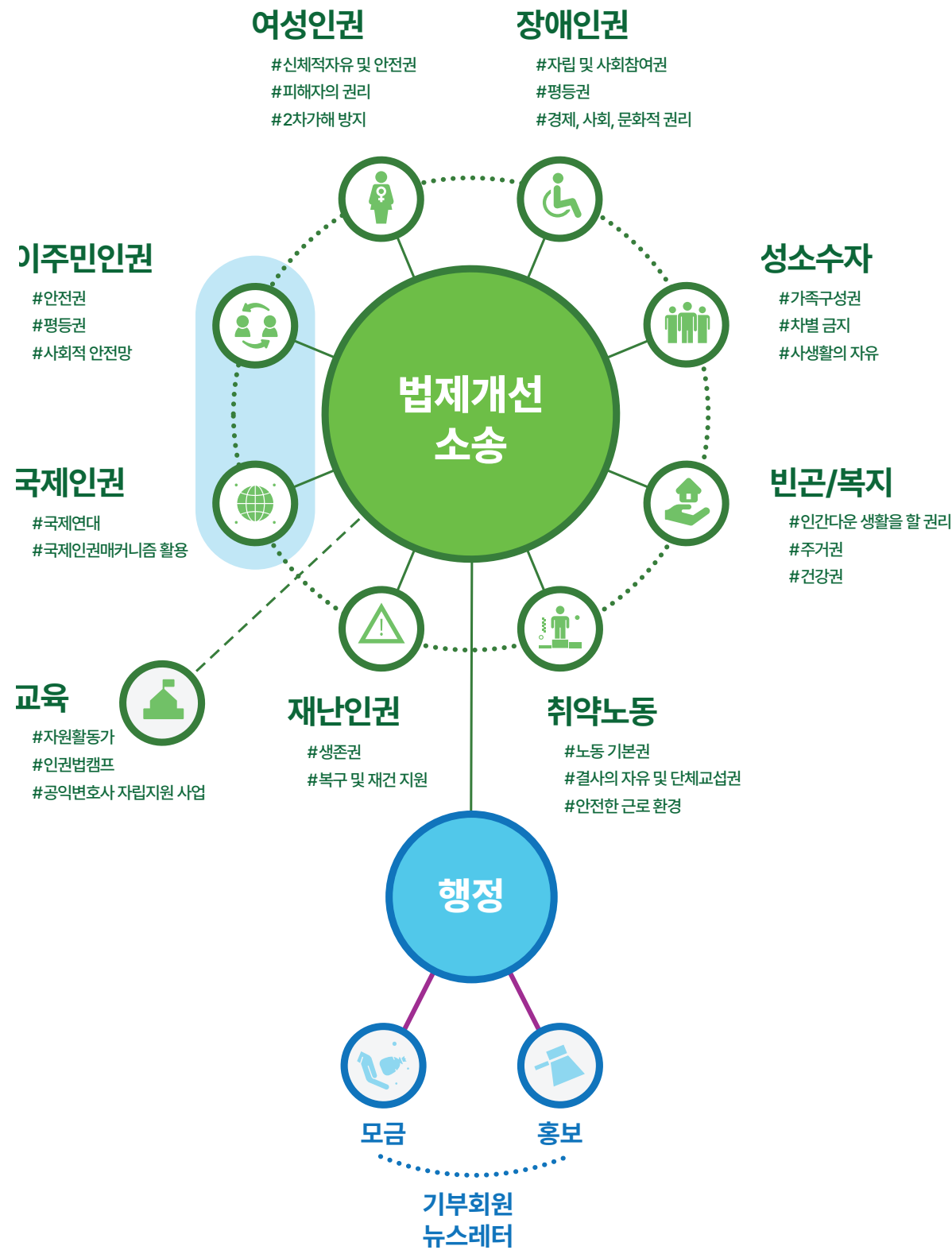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로펌 프로보노 담당변호사 간담회 개최

2005

•1기 공감 정기 자원활동가 활동 시작

조직 구성



여성인권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고, 성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및 광고,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변화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합니다.

장애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시작부터 긴밀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오랫동안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어온 동성커플의 권리, 차별 받지 않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소송의 사례를 쌓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적극 행동합니다.

빈곤/복지

노숙인 지원체계와 기초생활 보장수준과 수급요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홀리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진행합니다.

취약노동

다양한 형태의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의 법률지원을 진행하고,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난인권

불시에 닥친 재난의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지속적인 재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두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다져갑니다.

국제인권

아시아 공익변호사 공동활동 추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활동 등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합니다.

이주민인권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이 인권을 침해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교육

공익법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익 법제, 공익 소송, 관련 기관 및 현장 활동에서의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감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익법을 가까이 만나보고 사회 여러곳에서 공익 실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정 (홍보, 모금)

공익법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응원이 공감을 찾아온 인권 피해 당사자에게 닿아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극복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부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 지원, 인권 옹호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03 **임팩트 프레임워크**

- ▶ 공감의 공익법 활동
- ▶ 공감의 임팩트 프레임워크



▶ 공감의 공익법 활동

“공익법이란, 소외집단이 사회에서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기회와 권리에서 비롯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법’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외집단의, 그리고 그들을 위한 투쟁의 일부이다”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그 대상은 기존의 법제도 틀 안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법의 적용이나 보호가 어려운 집단의 사람들은 대개 매우 소수이거나, 생계 탓에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그 해결이 쉽지 않아 도움을 청할 수도,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공감 say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법제도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공감은 틀의 바깥에서 지금 존재하는 틀이 모두를 포섭하는가, 정당한가, 최선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공익법 활동이란 기존의 법제도 틀 안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을 위하여,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활동 중개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감의 공익변호사는 비영리성과 전업성을 가지고, 수임료 없이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사회의 여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공감을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법적인 쟁점을 다루는 일을 공감이 대신하고, 법의 언어를 통해 권리를 인식하여 피해 상황을 법적으로 표현하며, 법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그 활동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공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고, 공감의 언어는 이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습니다.**

공감 say

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의하다 보니, 소수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사회는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감 say

공감은 어떤 사람들이 소수자인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소수의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는 다수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어떤 면에서 소수자일 수 있기에 우리는 사회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당사자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이고, 공감이 바라는 사회의 변화이자 우리 사회가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공감 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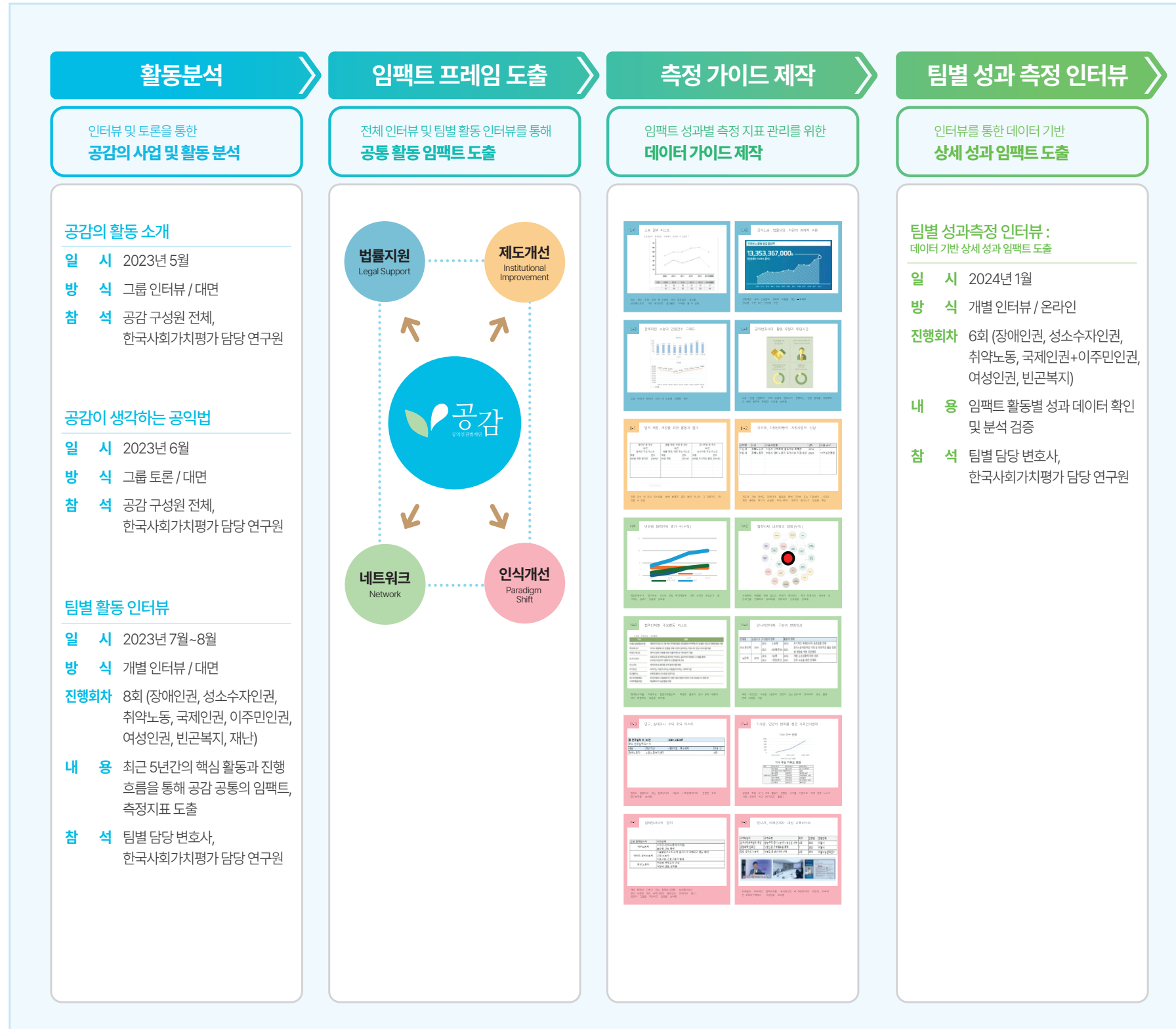
소송에서 이기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관련 활동가,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 Rajeev Dhavan (1986). 『Public Interest Law』, Blackw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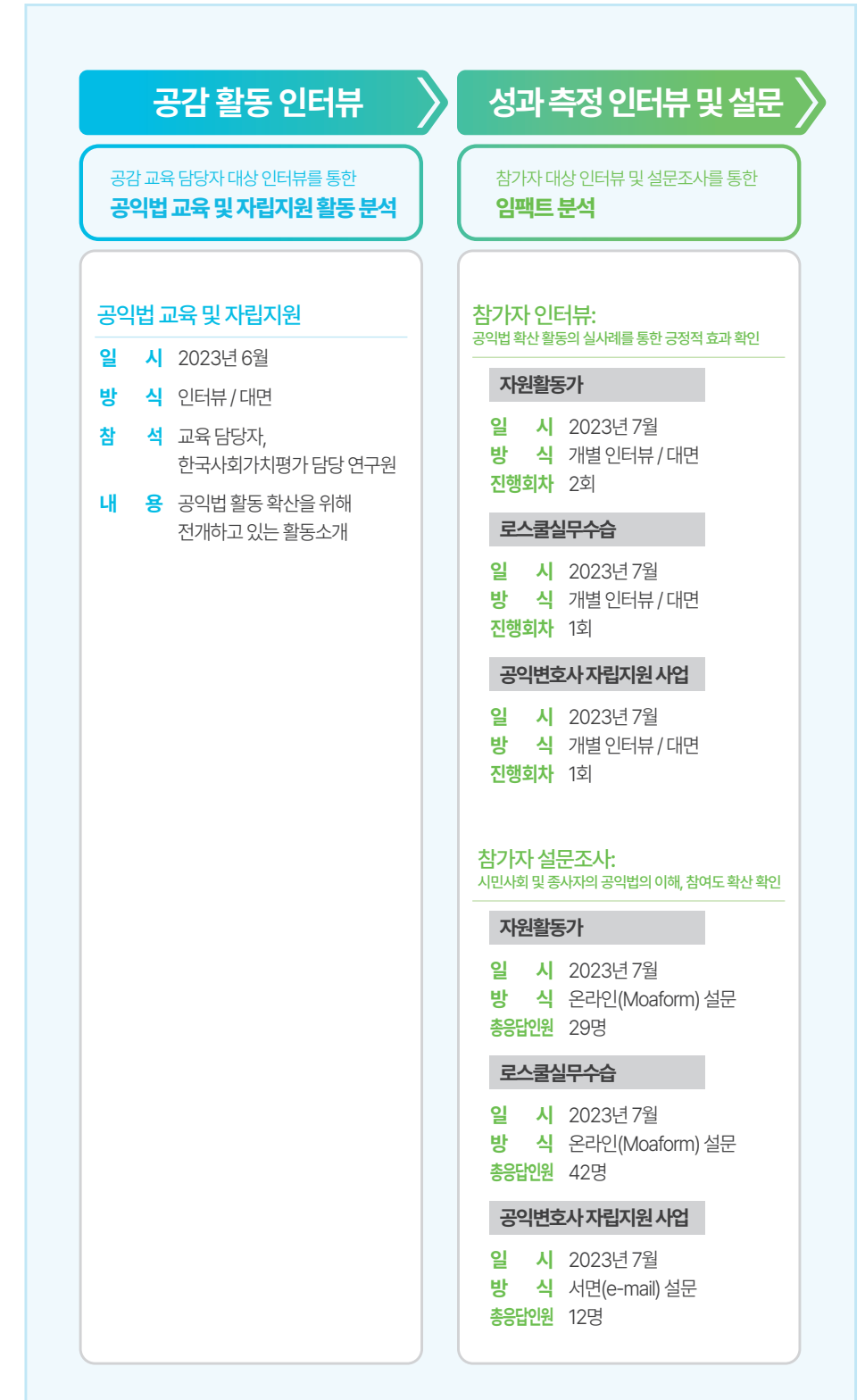
▶ 공감의 임팩트 프레임워크

✓ 공감의 임팩트 프레임워크 도출 개요

□ 공익법 지원 활동 조사



□ 공익법 확산 활동 조사



✓ 임팩트 프레임 워크

인권문제 인식과 해결

법률 사각지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마땅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과정을 지원, 동행하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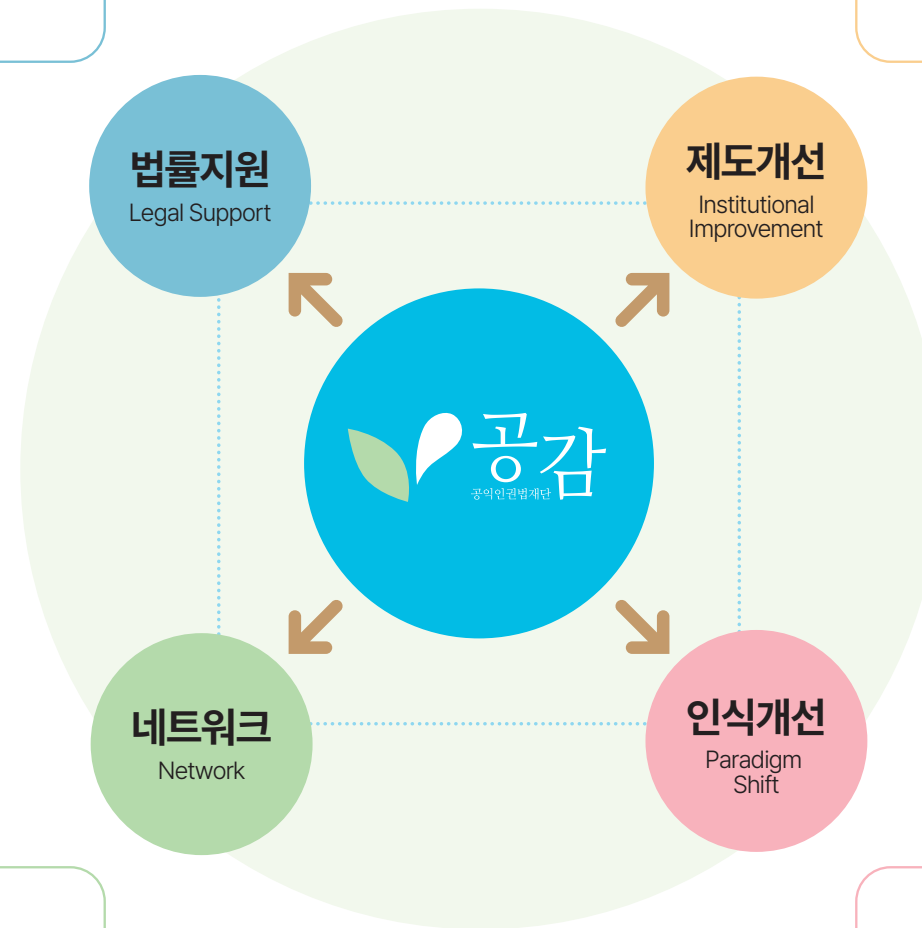
- 공익법 소송
- 공익법 상담, 자문

사회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권리 구제 및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률 및 정책마련을 한 성과

- 법 개정, 제정을 위한 공익 법률 발의안 성안*, 공론화 및 입법기관과 협의
- 법률 모니터링

*성안 : 안건을 만들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슈화

소수자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단체 및 개인과 연대하여 상시적 문제를 해결한 성과

-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연대 및 협력
- 특정 사안에 적극 대응을 위한 TF 활동 및 연대

공익법에 대한 관심과 지지, 지원의 동원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유도하고, 더 많은 대중 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성과

- 공익법, 인식 교육
- 실태조사, 법.제도적 사각지대 연구
- 공익법 관련 기고, 인터뷰

04 **임팩트 측정 결과**

- ▶ 임팩트 하이라이트
- ▶ 공익법 활동 임팩트
- ▶ 공익법 확산 활동 임팩트



▶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하이라이트

소송 활동

2019~2023

소송 수
210⁺건

발의안 수
27⁺건

제정,개정 수
9건

법률 상담&자문 수
*2023
392⁺건

교육&연구

2019~2023

내부 교육 수
62⁺건

외부협업 교육 수
217⁺건

연구 자료 수
88⁺건

내부 교육 시간
131⁺시간

외부협업 교육 시간
464⁺시간

내부 교육 총 인원
1,145⁺명

외부협업 교육 총 인원
3,732⁺명

홍보&캠페인

2023

언론홍보

인터뷰 **61⁺회** 기고문 **45⁺건** 토론회 **70⁺회** 기자회견 **90⁺회**

뉴스레터 발행 수
29 건

뉴스레터 오픈 인원 수
50,206 명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제작 수
75 건

인식개선 캠페인 영상 뷰 수
3,854 회

후원&양성

2019~2023

로스쿨 실무수습 참여자 수
122명

로스쿨 실무수습 교육 시간
8,071시간

인권법캠프 참여자 수
530명

자원활동 참여자 수
110명

자원활동가 활동 시간
18,326시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변호사 수 **9명** 총 지원금 **403,000,000 원**

누적 기부자 수
개인 **10,911명** 단체 **222개**

누적 기부 금액
4,239,831,901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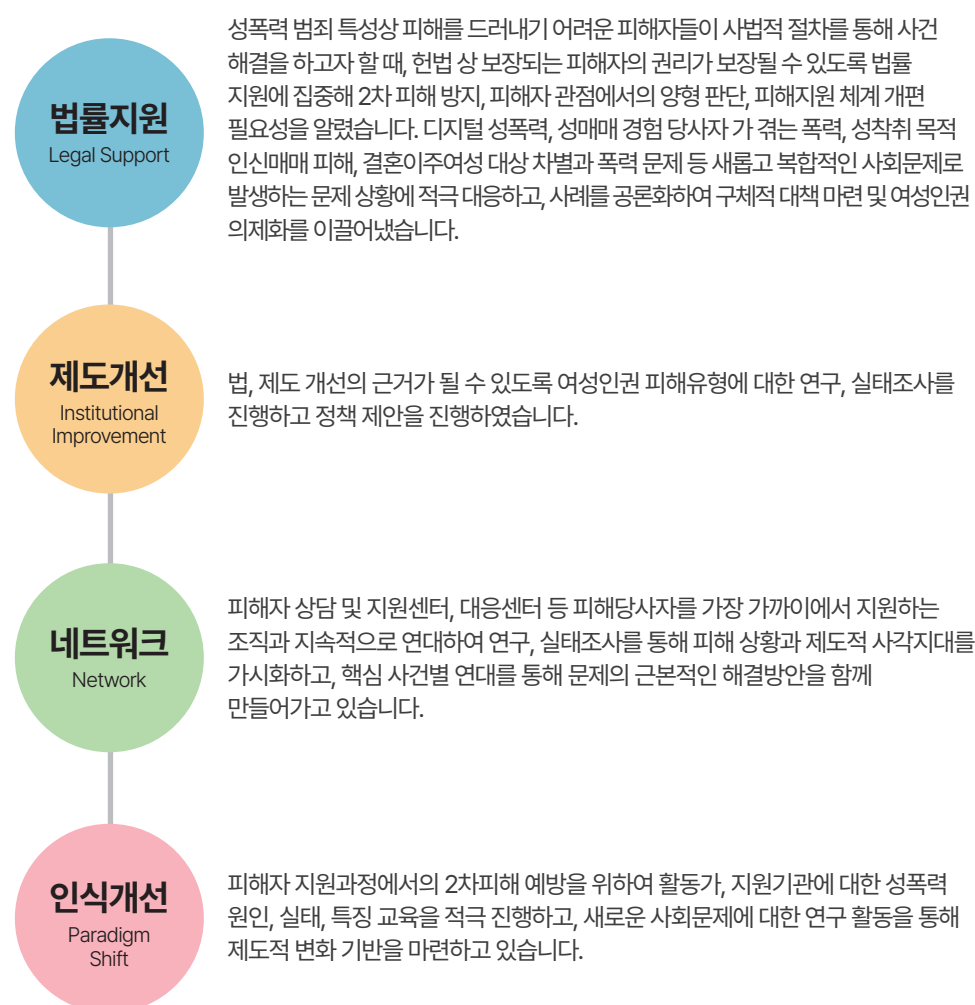


공익법 활동 임팩트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누군가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촬영,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유포하는 등으로 일련의 가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확대 재생산되며, 이는 결국 다수의 개인이 한사람에게 가하는 집단 성폭행에 다름아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디지털 집단 성폭행의 공범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광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 6722

여성인권



법률
지원

총 소송 47건

대표 사례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대표 소송	-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사건 - 생리대 안전성 문제 공론화 여성환경연대 피소건 - 텔레그램성착취사건 공동 대책위 활동 통해 피해자 대리, 주요 공범 재판 모니터링	- E-6 예술흥행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 성폭력 피해 입은 이주여성 피해자 대리,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성매매 과정 중 사기 및 성폭력 피해 무시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 개시된 사례, 피해자 대리 및 피의자 변론 - 여성 홈리스 강간치사 사건 피해자 대리
대표 사례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인정	위헌소송
대표 소송	- 인천 소재 공장 사업주가 재입국특례제도 악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대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한 사건, 피해자 대리 - 문경시의 '베트남유학생 대상 인구증가시책 홍보' 내용에 담긴 성 인종 차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낙태죄 위헌 소송



여성인권
2019~2023

교육 104건

연구 7건

협력 네트워크 2개

다루는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업을 위하여 공동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이외에도 각각의 개별 단체들과의 협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공동대리인단)

대중강연
7건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러 유형의 2차 가해

학생 교육
2건

- 성차별과 학생인권

(예비)법조인 교육
43건

- 디지털성폭력의 원인, 실태, 특징, 법제 교육
- 젠더폭력과 성인지 감수성 판례

활동가/연구자 교육
52건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 디지털성폭력의 원인, 실태, 특징, 법제 피해자 지원
- 이주배경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실무

연구 주제

협업 단체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의견서	민변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법률 실무 매뉴얼 출판	서울변회 프로보노센터
디지털성범죄 등TF	법무부
국제결혼중개업 광고 모니터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배경 폭력피해 판례 모니터링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연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불처벌'(2022) 출판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네트
워크

인식
개선

"해당 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

해당 조항의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지만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가9 결정

장애인권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참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개별적 권리구제 소송을 통해 당연한 권리가 외면 받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상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등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장애인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문제상황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책임을 묻습니다.



장애인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감은 지속적인 법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 제정, 개정 발의안을 제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을 기반으로 당사자 조직, 지원단체들과 연대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 법률개정, 컨퍼런스 주관 등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정추진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이어져 오기까지 긴 세월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 일반 시민이 법, 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모두의 장애인권 인식 성장을 기대합니다.

법률 지원

총 소송 **27**건

대표 사례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위헌소송
대표 소송	- 정신장애인 33년 시설수용 국가배상소송 - 염전노예 국가배상 상고심	- 지하철 단차 소송 1심, 항소심 - HIV 손가락절단 수술 거부 인권위원회 진정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차별 항소심 - 경계선지능인 장애 등록 소송	- 민법 제 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위헌소송 65세 장애인활동법 위헌소송

제도 개선

발의안 **10** 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법으로의 개선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위의 구체적 명시, 처벌의 실효성을 명확히 하는 법의 마련
- **탈시설지원법 제정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의 명문화

법 제정/개정 **2** 건

- **장애인복지법 제 15조 폐지:**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안:**
동료지원인, 쉼터, 절차조력인 등 일부 내용 반영 통과

장애인권 2019~2023

협력 네트워크 **15**개

장애인권 전반	장애인권 관련 법 제·개정	국제인권규범 이행	개별 권익 옹호
(사)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국제 장애인권 네트워크	HIV감염인 장애 인정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장애인권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장애인권리협약 2-3차 심의 대응 연대	정신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추진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개발 연대	장애인 탈시설 네트워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장애인권소위원회		유엔 탈시설 직권조사를 위한 네트워크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 **53** 건



연구 **8** 건

연구 주제	협업 단체
CRPD 뇌병변장애인 이행지표 제작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23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올력과 품앗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감금없는 정신보건(출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보호작업장 실태조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조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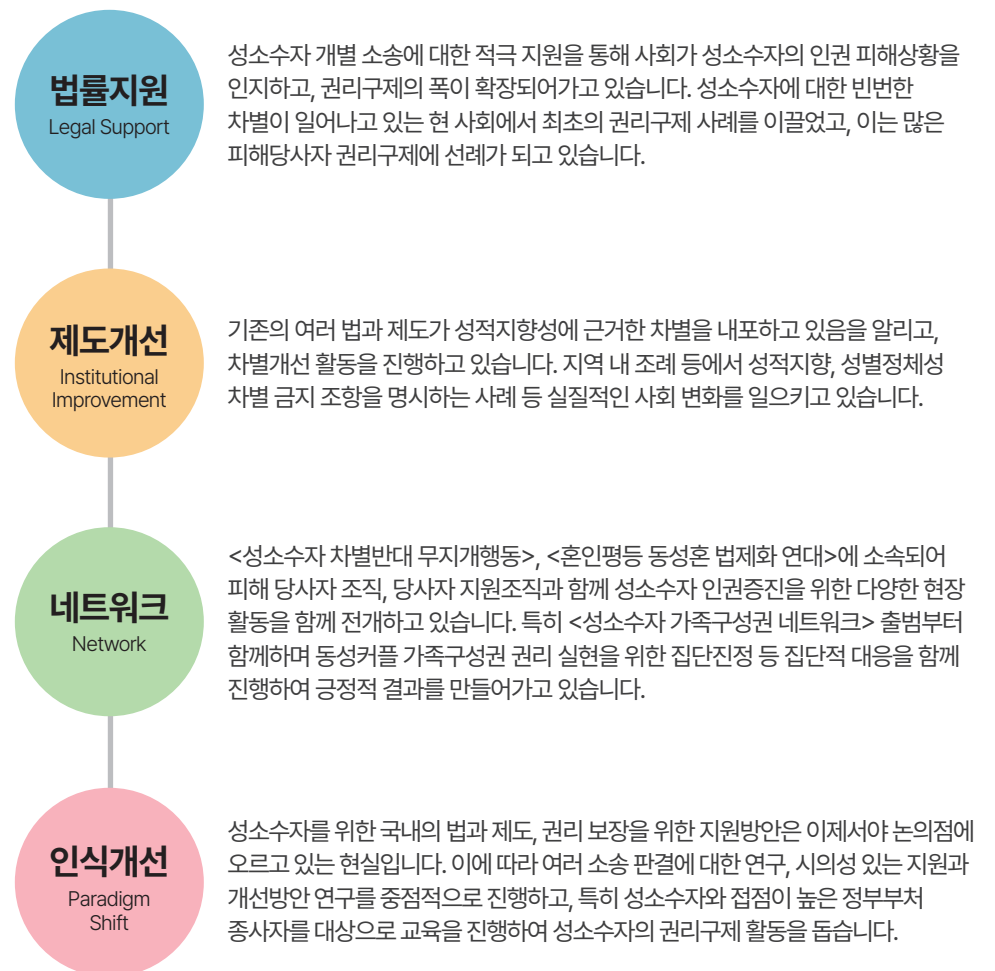
네트 워크

인식 개선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성소수자



법률
지원

총 소송 40건

대표 사례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인정
대표 소송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거부 취소소송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수리발의처분 취소, 효력정지 소송
대표 사례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권리구제 폭의 확장
대표 소송	- 서울서부지법 (외부성기)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 (2013) - 박OO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서울서부지법 김OO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안산지원(FTM) 조OO 광주가법(MTF) 유OO 광주가법(MTF) 김OO 외부성기수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허가 - 서울서부지법(비수술 FTM) 윤OO 군산지원(비수술 FTM) 양OO 광주가법(비수술 FTM) 정OO 전주지법(비수술 FTM) 최OO 생식능력 제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허가 - 영동지원(비수술 MTF) 5건 청주지법(비수술 MTF) 1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진행 중

제도
개선

발의안 2건

- **혼인평등법 민법 개정안:**
혼인의 성립 > 혼인은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외과적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모니터링 1건

-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평등법) 제정을 위한 활동:**
관련 이슈를 통한 입법정보 수집 등

지자체 조례안 2건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대상 - 학생
개선 -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최초 명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대상 - 서울 시민
개선 -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불허, 법인설립불허 차별인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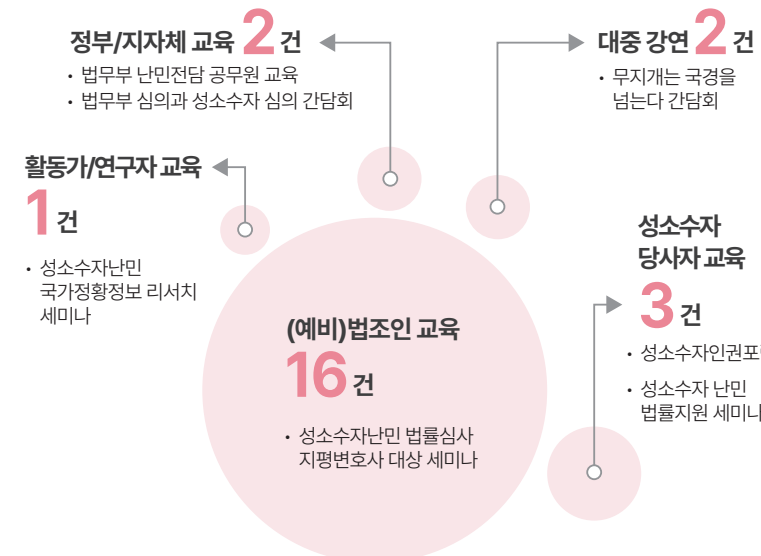
성소수자
2019~2023

교육 24건

연구 4건

협력 네트워크 6개

성소수자 전반	혼인평등	소수자 난민	차별 혐오 대응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총 44개 단체 소속)	성소수자가족구성원 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변 소수자인권위	혼인평등연대		



연구 주제	협업 단체
성소수자 차별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국가인권위
포용적 학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명동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가족구성권연구소,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인권연구

네트
워크

인식
개선

“혐오적 표현은 개인적, 집단적 수준에서는 차별을 내면화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혐오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여 차별이 공고한 사회구조로 고착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이 노숙인만을 특정하여 다수 시민이 통행하는 역사 내에 노상 배설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노숙인 혐오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22. 3. 25.
자 22진정0051600 결정

빈곤/복지



복지는 시민에게는 권리이고, 국가에게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혜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 아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조건부 수급자격을 맞추기 위하여 취업을 했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감은 소송지원을 통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알리고 개별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전근대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아직도 완전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고 완전폐지가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소속으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홈리스행동과 홈리스주거팀을 통해 연계 받은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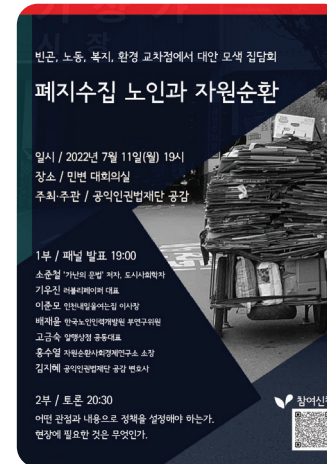


홈리스, 쪽방주민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 연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하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총 소송 6건

대표사례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인정
대표소송	- 국회 사무처 홈리스 출입제지 인권위 진정 - 서울역 노숙인 혐오조장 게시물 부착 건 인권위 진정	- 주거급여거부처분 취소소송 - 중증 지적장애 홈리스 특수협박 사건 무죄 변론	-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일명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 거리노숙인 실종선고 심판취소 청구



빈곤/복지
2019~2023

교육 15건

연구 4건

협력 네트워크 7개

복지 전반	기초생활보장	주거권, 홈리스 인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주거팀
느슨한 사회권 연구모임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예비)법조인 교육
15건

- 자원활동가 대상 빈곤복지 작은세미나

연구 주제 협업 단체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	홈리스행동,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필요성	홈리스추모제 기획단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스터디 및 집담회	공감
사회권에 대한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네트
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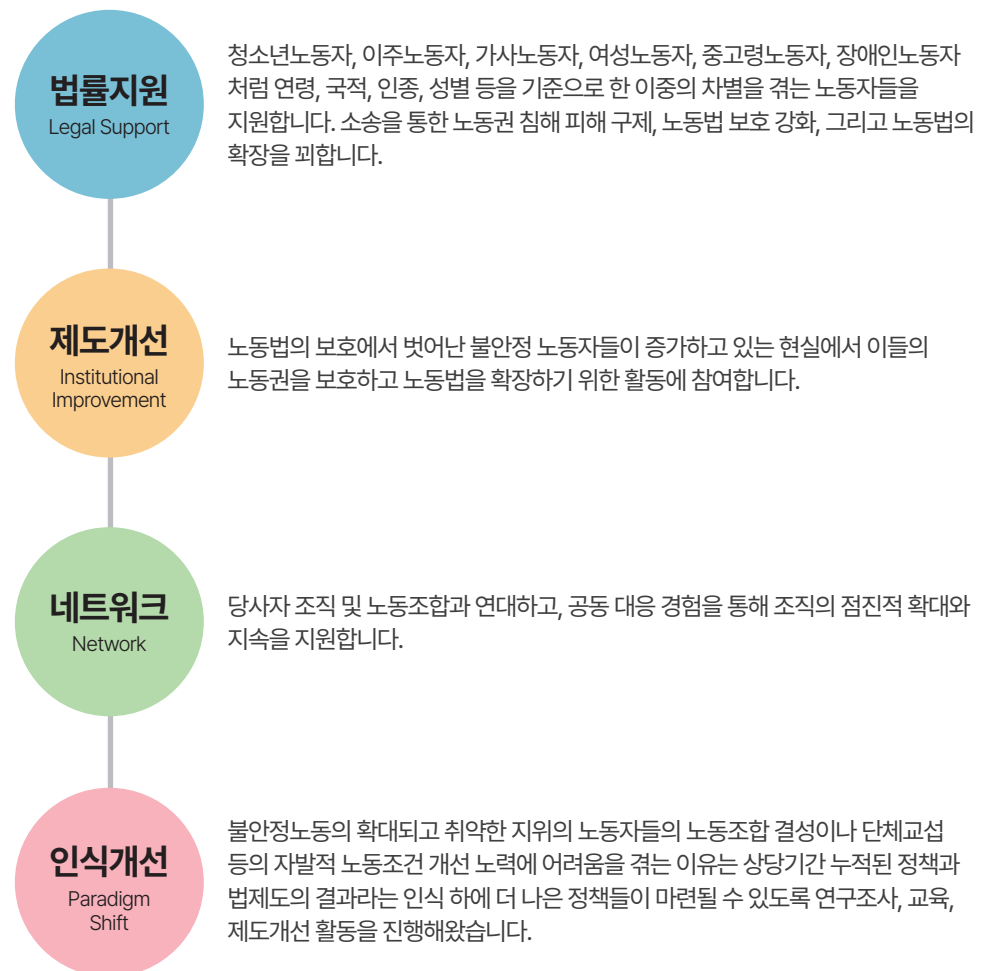
인식
개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국정원 여성 노동자 정년 차별 사건

취약노동



법률
지원

총 소송 27건

대표사례	실사용자 책임의 법적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외연 확대
대표소송	아파트안내원 손해배상 청구 및 휴게시간 근로 임금청구 소송	- 재택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심판 취소소송 - 방송작가 부당해고구제심판 취소소송 - 뮤지컬 배우 간이대지급금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표사례	부당 근로계약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 사례 구제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및 연대 확장의 경험
대표소송	- 대학 시간강사 휴업수당 청구소송 -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소송	-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대학생현장실습 인권위 진정

제도
개선

발의안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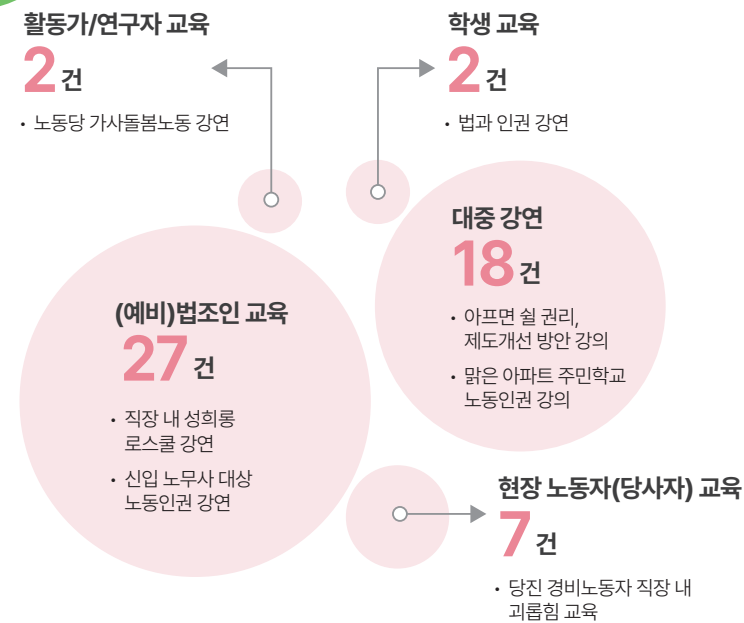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안):**
장기 요양요원 성희롱 예방 및 처우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강은미 의원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최종운 의원안):**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운영비, 인건비 분리 지급 및 회계기준 강화를 통한 인건비의 투명한 관리

협력 네트워크 12개

제도개선 및 현안 대응	당사자 단체	연구 모임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장애인활동지원사노조	중대재해전문가넷
엔딩크레딧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희망연대본부 드라마스태프노조	
직장갑질119		입법 운동
사회복무요원 안전복무 실현을 위한 공대위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취약노동
2019~2023

교육 56건



연구 22건

연구 주제	협업 단체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직장갑질119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진상조사 보고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NPO 직장 갑질 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NPO 법률지원 센터
원청갑질 대응 보고서	직장갑질119
비정규직 20주년 평가 보고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연구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요양공대위
콜센터 외주화 연구조사	전국사무금융노조
직장여성 살아남기 보고서	직장갑질119

네트
워크

인식
개선

"아무런 생계지원을 제공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취업활동을 일체 불허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

난민신청자 전부를 난민 인정시까지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생계지원도 없이 취업활동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선량한 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국제인권/이주민인권



난민지위인정, 이주노동자 주거 및 노동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각종 인종차별적 제도나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소수자성이 교차되는 경우 공감 내부 혹은 외부단체와 협업을 통해 구제방안을 찾아 갑니다. 우리 사회 가장 외면 받는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지만 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난민 인권, 이주민 인권을 다루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세부적인 사건과 이슈에 대해 대책위원회 혹은 Task Force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대응 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난민 인권, 이주민 인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의 인종차별적 제도와 행정의 여전히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은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 교류를 적극 이어감과 동시에 국제 인권법에 발맞춘 한국의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관련 매뉴얼을 연구, 제안합니다.

법률
지원

총 소송 51건

대표사례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인권, 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대표소송	불법촬영 사용자 형사사건 피해 여성이주노동자 소송	-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인권침해 진정 - 선원 이주노동자 재해보상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대표사례	상시적 대응의 지속성 경험	위헌소송 + 제도개선
대표소송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위헌소원 - 러시아 정치적의견 난민신청자 지원 소송	- 출입국 관리법 63조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소송 -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 2항 위헌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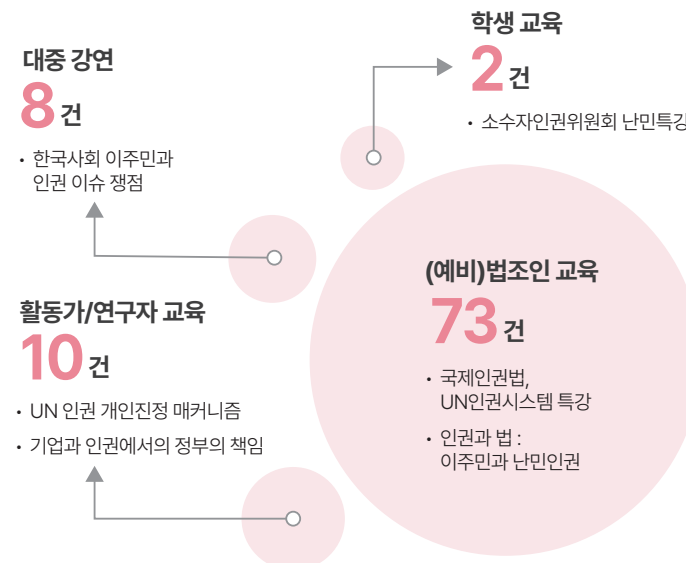


국제인권
이주민인권
2019~2023

협력 네트워크 34개

국제연대	국내연대		
- 로아시아 인권위원회, 로아시아 인권변호사 네트워크 - 아시아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컨소시엄 - 공익법넷(PILnet) 프로보노 중개센터 네트워크 - 신뢰법 (TrustLaw) 프로보노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 세계운동변호사네트워크 (Global Network of Movement Lawyers) - 인권을 위한 역량과 연대 심포지엄 (Symposium for Strength and Solidarity for Human Rights) 네트워크 - 외교훈련프로그램(DTP) 동문(Alumni) 네트워크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 난민과 국제보호 아시아 네트워크 (ANRIP) - 코로나 보건형평성 옹호 네트워크(Equitable COVID healthcare advocacy network) -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아시아 변호사팀	국제인권 - 변협 국제인권특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인권법학회 - 국제인권네트워크 -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 시민사회 사무국 -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 사무국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 사무국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사무국 - 세계한인법률가회(AKL) - 아동인권포럼 - 해외입양인 문제 진실과화해위 신청 대응모임	이주 - 이주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임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 이주구금제도개선TF -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응 대책위원회 - 대구 무슬림사원 공사중지명령 대책위원회	난민 - 난민인권네트워크 - 소수자난민네트워크
		기업과 인권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업인권환경실사법 대응팀 - 라오스댐 붕괴 사건 대응팀	

교육 93건



연구 14건

연구 주제	협업 단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다시쓰기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아름다운 재단, 법조공익모임 나누 지원)
이주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북	도서출판 하우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장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기후위기 - 국내거주 이주민 관련 인권적 접근 제안	공익과인권
이주인권 디딤돌, 결림돌 판결 선정 및 평석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네트
워크

인식
개선

재난인권

“제가 평소에 해왔던 인권의 영역인지 잘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진행 사건과 연혁

2014

- 4.16 세월호 참사: 그 현장 속으로 몸을 던지다
→ 1년 여간 세월호 피해가족 법률지원,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법률지원 변호사단 활동

2015

- 메르스 사태: 닫힌 사회의 갇힌 이들, ‘격리’된 이들을 찾아서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활동. 격리 관련 법제와 관행 연구 수행

2016

-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이 보이지 않는 참사, 국제적 대응을 꾀하다
→ 옥시 본사 RB가 있는 영국에서의 소송 진행 자문 지원

2017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변하지 않는 재난 대응, 변화를 외치다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활동으로 피해자 법률지원, 자문

2018

-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특별법상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결합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 재난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

2022

- 공감 재난팀 구성

공감의 재난팀은 비교적 최근에 구성이 된 영역입니다. 그 활동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기 전까지, 공감에서 그동안 해 온 경험 중 이 참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 지 몰랐던, 그야말로 ‘재난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감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도 알 수 없던 피해 가족들을 위해,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와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상주하며 활동하였습니다. 피해가족 조직의 운영, 정부 및 국회와의 협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신속하게 또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피해가족들이 힘을 유지하고 그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 메르스 사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등 새롭게 맞닥뜨린 재난의 현장 뿐 아니라, 장기간 힘겨운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까지, 각각의 사건 마다 현장에서 함께하며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나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더욱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상황 따라 사후적으로 법의 이해를 구하고 보호 방안을 찾는 방식은 또다른 소외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재난상황에 있어 법률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활동을 통해 ‘재난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22년 ‘재난팀’을 구성하여 공감의 다른 영역 활동과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재난인권팀은 오로지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을 바라보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공감의 지향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불시에 다가온 재난의 상황처럼 이 문제의 완성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과 외국의 자료들을 토대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새로 결합하는 사람들, 나아가 이후의 누군가가 재난 현장에서 헤매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 10.29 이태원 참사 민변 TF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분과
- 대한변협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코로나19와인권 TF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 공익법 확산 임팩트

공익법 활동은 개인의 법률적 보호와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 전반을 강화시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공익법과 관련된 법률가 및 전문가뿐 아니라 공익법을 이해하고 꾸준한 관심을 갖는 여러 사람들의 성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공익법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공익법 활동을 함께 이어 나갈 동료들을 만드는 것 즉, 공익법을 확산하는 것 또한 공감의 추구가 지향점입니다.

공감은 공익법 확산을 위해 1)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2) 로스쿨 실무수습, 3)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4)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모집 영역: 국내외 법률 문헌 연구조사

진행 기간: 2004년 ~ 현재

누적 참여자 수: 763명

누적 진행 시간: 153,086시간

주요 활동: 공감 활동분야별 변호사가 주최하는 <작은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변호사 활동 동행,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 및 사안 대응 활동 경험

□ 참여자 대상 인터뷰

Q 자원활동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7기 자원활동가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법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감을 소개받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때부터 공감을 알고 있었고, 법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어 자원활동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19기 자원활동가

Q 공감의 활동 중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17기 자원활동가

실제 변호사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공감의 공익변호사는 변호사이자 연구자, 활동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감에서는 '변호사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중 내가 인식하지 못했고 관심가지 않던 상황, 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문제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기 자원활동가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 개요

조사 대상: 2019~2023 자원활동가 (응답인원 29명)

조사 기간: 2023/07/24 ~ 2023/07/31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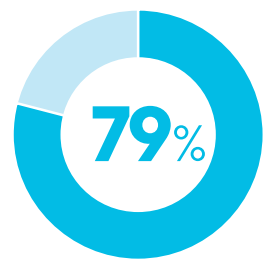
설문 항목: 공익인권법,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 자원활동가 활동을 통해 받은 영향, 현재 공익 활동 지속 여부

• 자원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익법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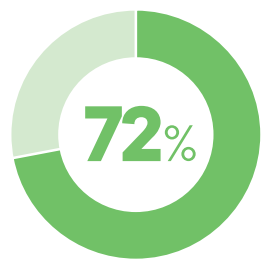
자원활동가 참여 이유로 '공익변호사와 공익법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62%)는 관련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지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관심있는 공익법 분야는 1인 약 3.72개로, 참여 전과 비교(3.24개)하여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감의 활동 전부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감의 활동을 계기로 여러 공익법 분야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활동 경험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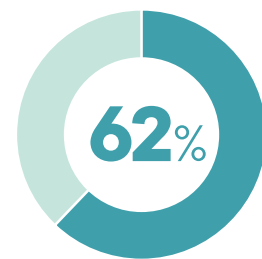
Q 자원활동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 호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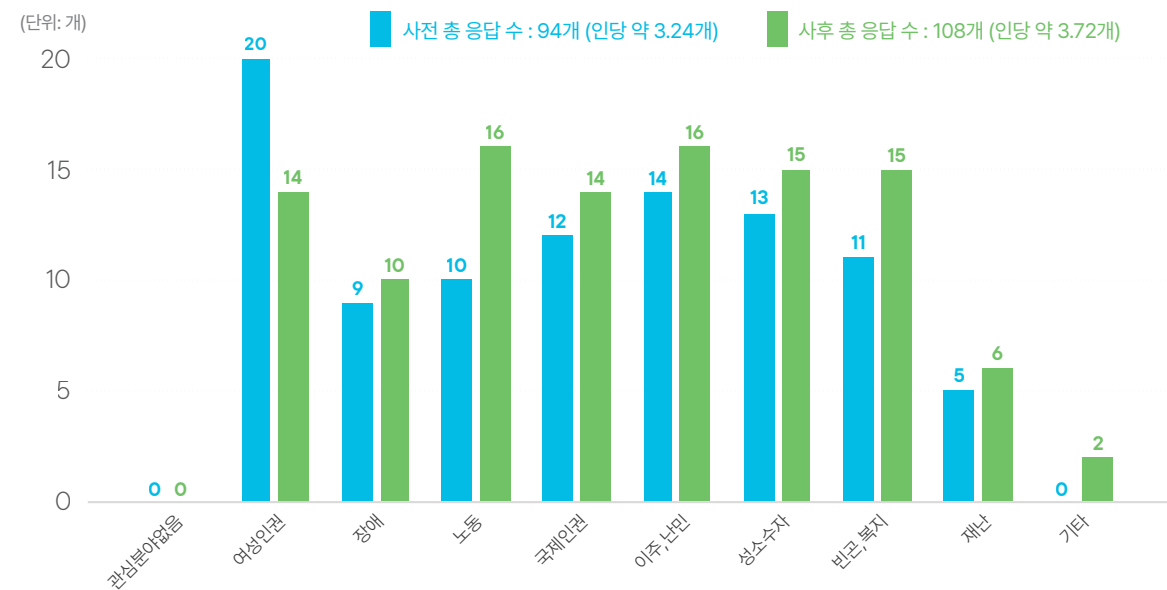


공익법에 대한
관심, 호기심



진로에 대한 도움

Q 자원활동 참여 전/후 관심있는 공익법 분야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 자원활동 경험 후 공익활동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응답자의 약 38%가 자원활동가 종료 후에도 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생, 법조인, 타 직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감의 자원활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공익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공익활동 또는 공익법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자원활동 경험이 주는 차별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인 만큼 활동 종료 후 공익 활동 유지율은 높지 않지만 여전히 공익 활동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익활동가, 공익변호사가 활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공감의 자원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공익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Q 공감의 자원활동 후 나와, 같은 직종의 다른 종사자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익활동 중인 친구와 협력하여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등 나의 사회활동에서도 공익활동 경험이 종종 결합되는 기회가 생긴다.

취업을 준비할 때 공익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활동 중 만난 활동가 동료들과 여전히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공익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영향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권에 관한 여러 사안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로스쿨 실무수습

<프로그램 개요>

모집 대상: 로스쿨 재학생

진행 기간: 2009년 ~ 현재

누적 참여자 수: 309명

누적 진행 시간: 20,762시간

주요 활동: 2주 실무수습 기간 동안 공감 변호사가 주최하는 작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공익법 영역에 대해 배우고, 소송서면 작성 및 검토, 연대 단체 방문을 통해 공익변호사 업무 직접 경험

□ 참여자 대상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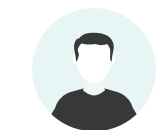
Q.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2020년 실무수습 참여자

공익인권에 관심이 있었으나, 학사 커리큘럼에는 공익법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공감에 지원했습니다.

Q. 실무수습이 진로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2020년 실무수습 참여자

졸업 후 첫 진로를 재단과 법무법인이 결합된 공익법 관련 분야로 결정했습니다. 공익법 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갔어요.

Q. 우리사회의 공익법, 공익변호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2020년 실무수습 참여자

가까이에서 공감의 활동을 경험해보니, 공익변호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어야 그 길을 잇는 사람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전담변호사도 이혼 변호사, 행정 변호사처럼 대중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설문 개요

조사 대상: 2019~2023 로스쿨 실무수습 참여자 (응답인원 42명)

조사 기간: 2023/07/24 ~ 2023/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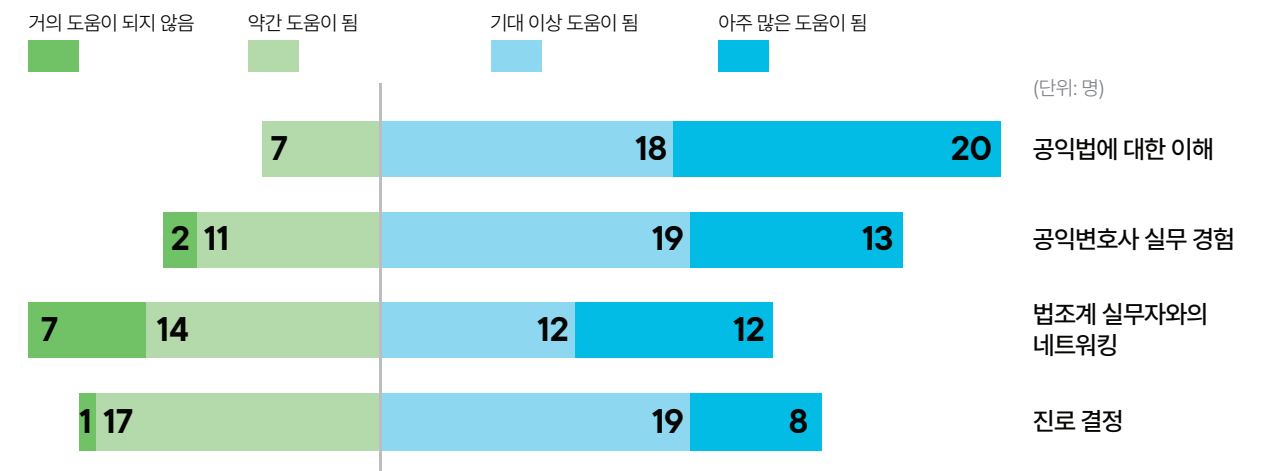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항목: 공익인권법,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 실무수습 활동을 통해 받은 영향, 현재 공익변호사 활동 또는 공익 활동 지속 여부

• 학생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2주간의 실무수습을 진행한 응답자들은 공익법에 대한 이해, 실무 경험, 네트워킹, 진로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각 분야의 변호사가 전담 배치되어 공익법 실무를 함께 진행할 뿐 아니라 <작은 세미나>를 통하여 공감의 모든 활동 영역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얻지 못하던 공익법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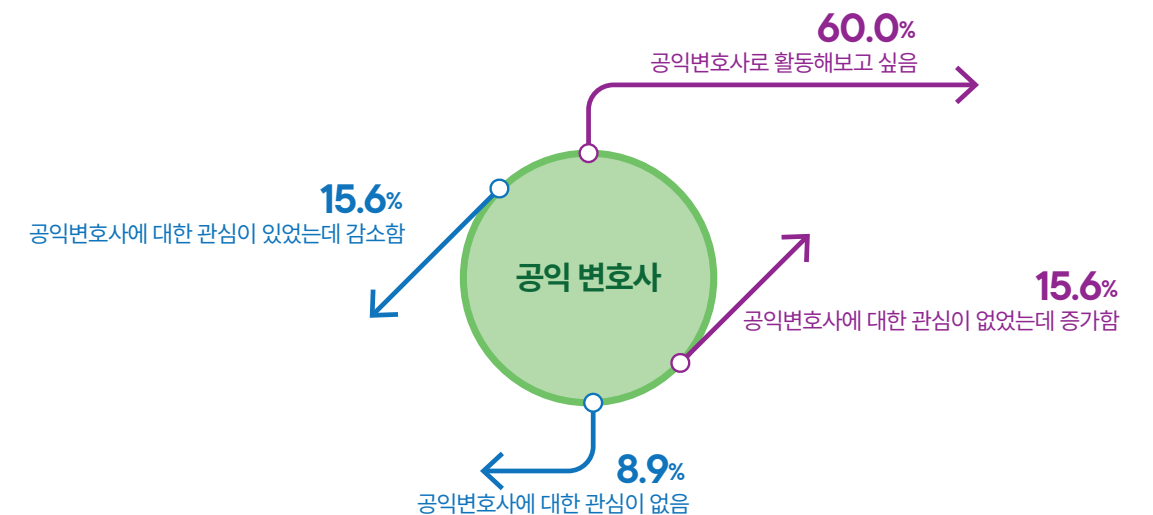
Q 실무수습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

실무수습 진행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거나 여전히 공익변호사로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총 75.6%로,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Q 실무수습 경험이 나의 진로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사유에는 진로 적성의 이유도 있었으나, 가까이에서 본 공익변호사의 사회적 처우와 환경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많이 열악함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더하여 실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공익변호사가 가져야 할 사명감에 대한 존경심이 커 스스로 더 공익활동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거나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75.6%로, 공익변호사의 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응답자가 많았는데, 수습기간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가치 실현의 방법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감소함, 여전히 관심이 없음

- 기대보다 열악했던 공익변호사의 환경
- 높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공익인권 영역에 대한 존경심과 부담감
- 희생과 사명감이 필요한 전업 공익변호사의 길에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관심이 없었는데 증가함, 여전히 관심이 있음

- 구체적인 일 경험을 통해 공익변호사에 대한 이해도 증가
- 공익인권 변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발견
- 공익변호사의 다양한 활동범위 확인을 통해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음

공감의 실무수습 활동은 이처럼 실제 공익인권 영역의 업무가 가진 가치와 또 그 현실을 미래의 법조인에게 잘 전달하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을 위하여 공감의 모든 소속 변호사가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투입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전하지 못하는 공익변호사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공익변호사 양성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모집 대상: 전업 공익변호사(또는 예정자)

진행 기간: 2014년 ~ 현재(10년)

누적 참여자 수: 21명

주요 활동: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변호사는 특정 공익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을 하거나 직접 공익단체 설립을 진행하여 공익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참여 변호사 대상 인터뷰

Q. 공감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나요?



자립지원사업
선정 변호사

공감에서는 대학생때 자원활동가로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권 영역에서 법률적 지원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익단체의 상근 변호사로서 지원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익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립하기에 2년은 매우 짧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변호사들의 활동 의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Q. 경제적 지원 외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립지원사업
선정 변호사

인적 자원의 연계가 업무적 고충을 나누거나 서로 간의 지지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Q. 자립지원사업이 나에게 준 가장 좋은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립지원사업
선정 변호사

관심있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원 종료 후에도 여전히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공익변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 것. 경제적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공감과도 꾸준히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참여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설문 개요

조사대상: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중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류중인 변호사 (응답인원 12명)

조사기간: 2023/07/05 ~ 2023/07/10

조사방식: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개별 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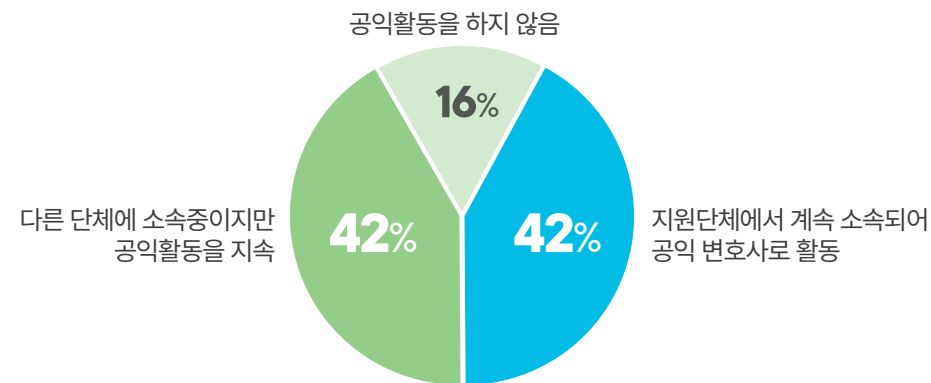
설문항목: 공익인권법,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 실무수습 활동을 통해 받은 영향, 현재 공익변호사 활동 또는 공익 활동 지속 여부



• 자립지원사업이 공익변호사 양성에 주는 영향

응답자의 83%는 자립지원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서 로스쿨 실무수습 응답의 결과 중 공익 전담변호사 활동에 관심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있었는데, 현직 변호사의 자립 초기 경제적 지원이 이어졌을 경우 공익 전담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가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자립지원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기타 의견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변호사를 전담고용하게 된 단체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데,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50%는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 소속되어 공익 전담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립지원사업의 경제적 지원은 2년의 기간동안 변호사의 공익활동 발판이 되어주면서, 공익 단체에서도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공익변호사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자립지원사업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1. 경제적 도움

- 비영리전업단체 자립의 뿌리가 되어주었다
- 전업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롯이 사건지원에 집중 할 수 있었다
- 공익활동에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네트워크 형성

- 활동 초기 겪는 어려움을 선배, 동료와 나눌 수 있었다
- 공익영역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익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3. 기타 (소속 단체의 변화)

- 대부분의 공익단체가 전담 변호사 고용이 어려워 활동에 있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사업을 통해 전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과 고용 의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되었다

• 현직 변호사가 생각하는 공익법 생태계 확산에 필요한 지원

공익 전담변호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동료 및 네트워크의 확장을 꼽았습니다. 힘듦을 나눌 수 있고, 활동을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동료 공익변호사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다면 공익변호사로서 지속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 전담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기에 우리 사회의 인권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공익변호사로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익 생태계를 위해 현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더 많은 공익변호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공감의 자립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변호사들간의 네트워킹 자리 마련을 통해 공익변호사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의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물이 또 다른 공익변호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익법 생태계 양성의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Q 우리 사회의 공익변호사 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1. 동료 및 네트워크

2. 경제적 지원



✓ 인권법캠프

<프로그램 개요>

모집 대상: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진행 기간: 2008년 ~ 2020년 (1박 2일 또는 2박 3일) / 2021년 ~ 현재 (1일)

누적 참여자 수: 1,762명

주요 활동: 공감의 공익인권법 활동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탐구하며 공익인권 활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각계의 외부 강연자 초청을 통해 공감의 활동영역에서 더 확장하여 실제 공익을 다루는 현장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합니다.

□ 초청강연 주제

(최근 5년)

진행 회차	주제	강연자
27회(2023.07)	시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변상욱 기자
26회(2023.02)	기후정의와 인권	조효제 교수
25회(2022.07)	어찌하여 나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명백함을 믿을 수 없게 됐는가...	변영주 감독
24회(2022.02)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헌법도 그렇다.	김제동 이사장
23회(2021.07)	차별에 찬성하지 않고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오찬석 작가
22회(2021.02)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본주의를 넘어 삶으로	김누리 교수
21회(2020.02)	불행이 아니라 불평등이다	장혜영 감독
	내가 꿈꾸는 세상과 법원 / 검찰의 역할	이탄희 변호사
20회(2019.07)	사랑차별금지법은 가능한가	김원영 변호사
	한국의 여성인권 운동	서지현 검사
19회(2019.02)	말하기의 기본	정세진 아나운서
	인권보호의 역할 입법영역과 사법영역에서의 차이	박주민 국회의원

□ 공감강연 주제

(최근 5년)

진행 회차	주제	강연자
27회(2023.07)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	황필규 변호사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 그들을 만나는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성폭력 사건 형사 재판의 빈칸 채우기	백소윤 변호사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김지림 변호사
26회(2023.02)	노동3권의 의미와 현실	윤지영 변호사
	혼인평등으로 가는 여정	장서연 변호사
	일상을 허가 받아야 사는 사람들	박영아 변호사
	장애인권리협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조미연 변호사

진행 회차	주제	강연자
25회(2022.07)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지림 변호사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윤지영 변호사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	박영아 변호사
	헌법과 동성혼	장서연 변호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법의 맞물림	조미연 변호사
	재난과 인권, 다시 그 길을 묻는다	황필규 변호사
24회(2022.02)	국제인권, 멀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김지림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 너는 누구냐?	백소윤 변호사
	성소수자 인권과 법	장서연 변호사
	우리가 재난을 마주하는 법	황필규 변호사
	장애인의 일할 권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조미연 변호사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박영아 변호사
23회(2021.07)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김지림 변호사
	판결 속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는 숨은 판결 찾기	백소윤 변호사
	제3의 길,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	엄형국 변호사
	산업의 변화! 노동자들의 권리는?	윤지영 변호사
	장애란 무엇인가?	조미연 변호사
	인간답게 살기위하여 필요한 것들	장서연 변호사
22회(2021.02)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김지림 변호사
	인권에도 국경이 있나요	박예안 변호사
	그 방이 닫힌 뒤, 그 방에 갇히지 않도록	백소윤 변호사
	사람을 가둔다는 것	엄형국 변호사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청년들	윤지영 변호사
	재난참사의 현장, 인권을 말한다	황필규 변호사
21회(2020.02)	장애인분야 공익변호사로 성장하기 (장애인 분야에서 공익활동 참여하기)	엄형국 변호사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윤지영 변호사
	보이지 않는 가난, 복지의 사각지대	장서연 변호사
20회(2019.07)	임신 종결과 여성의 인권	차혜령 변호사
	화려한 방송계 뒤편의 사람들	김수영 변호사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김지림 변호사
	빈곤을 증명하라	박영아 변호사
	재난을 참사로 만들지 않는 법	황필규 변호사
19회(2019.02)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엄형국 변호사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김지림 변호사
	신세기 홍길동전?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	김수영 변호사
	성폭력 / 여성폭력 / 젠더폭력 그리고 평등	차혜령 변호사

05 미래비전



▶ 미래비전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공감은 지난 20년간 공익인권법 전반의 영역에 걸쳐 법률지원, 제도개선, 네트워크, 인식개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법적 조력자이면서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이들 인권의 나아감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공감을 찾아온 다양한 공익인권 문제에 깊이 있게 대응하여 길을 개척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 제도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활동부터 법률안 제안, 모니터링까지 전 활동에 참여하며 법의 사각지대가 줄어 들고 법의 보장에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사회 문제 개선은 비단 한 건의 소송, 하나의 법 개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인권구제를 위한 대응의 지속성과 소외 없는 법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및 지원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또한 눈앞에 닥치지 않은 잠재적 위험에 소극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사회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 단체 운동 등 현장의 적극적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익인권 활동의 영향력의 확산을 위하여 공익 변호사 및 활동가 양성에 함께 힘쓰고 공익활동 생태계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감은 **1. 공익소송 전문성 향상 2. 교차영역 대응과 네트워크 구축 3. 수도권 외 지역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통해 공익인권활동 생태계의 확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는 또다시 등장합니다.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소송, 입법, 공익법 확산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입니다. 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차영역 대응 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시선에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공익변호사 양성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익인권 소송은 길게는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장기적인 노력입니다. 공감의 공익소송 경험과 노하우, 피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함께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 주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익인권 증진의 실마리를 찾아 이어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공감아, 그리고 소외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낸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지치지 않고 나아가 인권구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록 1: 주요 소송 사례



여성인권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사건 고소	- 회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을 부당징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고소 진행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사업주, 책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되었고,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개선되어야 함을 일깨워준 사례
	생리대 안전성 문제 공론화 여성환경연대 피소 건	- 생리대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상 위해 가능성 공론화한 여성단체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 -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의 인정을 이끌어냄 - 공익단체 피소의 부당함에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분하고 참여한 사례
인권/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E-6(예술흥행) 비자 소지 이주여성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유혹接客원 근무 및 성매매를 강요시킨 업주와 브로커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체류자격을 위한 고용관계 증명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 인신매매 수사와 처벌에 소극적인 기관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이주여성 인권이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의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알림
	성매매 과정 중 사기 피해 목인, 성매매처벌법 기소	-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폭행한 가해자(성구매자)를 사기와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 개시한 사건 - 현행 성매매 처벌법(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을 악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 및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회가 된 사례 - 성판매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제기함
	여성홀리스 강간치사 사건 피해자대리	- 홀리스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뒤 현장을 떠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가해자는 공탁으로 감경된 사건 - 무연고자로 살아가는 여성 홀리스 대상 범죄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게 된 사건 - 홀리스뉴스 특별판을 제작, 홀리스 사회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서울역 추모제를 진행하여 홀리스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사건 뿐 아니라 불안한 홀리스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 소송	- 형법상 '낙태죄'에 관해 나온 한국의 모든 논의와, 최신의 국제적 흐름을 담으면서, 동시에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모두 변론에 담겠다는 암묵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 소송 -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담론을 형성하는 바탕을 만들어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었던 사례 - 연구자들의 연구, 재생산권 운동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낙태에 관해 발언한 결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시민사회가 함께 행동하고 법이 응답한 사례
제도적 시각지대에 대한 인정	인천 소재 공장 불법촬영, 강제추행 피해 소송	-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피해자)가 화장실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사업주의 범죄에 대해 다툼 소송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체류허가 자격과 일자리를 상실, 성실근로자 재입국특례도 배제될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권리 구제 소송을 진행 - 사용자(사업주)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신고의지가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흠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입국특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
	문경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국가인권위 진정	-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문경시의 인구정책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인종, 여성차별 문제가 제기된 소송 -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정책에 반영될 만큼 이주여성 인권에 있어 매우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제기하고, 해당 협조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주민 차별적 정책에 대한 개선 시작을 촉구한 사례

장애인권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정신장애인 33년 시설수용 국배소송	80년대 부랑인 단속에 의해 시설에서 30년동안 수용되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소송 - 일부승소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줄어든 인정) -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이 처한 개별 상황에 맞게 보다 세심하고 정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염전노예 국가배상 상고심	- 반복되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학대에 대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의 책임 인정 소송 -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에도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와 완도군에 재차 책임배상 판결이 내려진 소송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해자의 책임 부정 태도에 사회가 비판하고 법이 끝까지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례를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을 기대
인권/권리/ 이슈로의 의제화	지하철 단차소송 1심, 항소심	-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과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시정방안을 제기한 소송 - 소송을 통해 지하철 승강장의 넓은 간격과 단차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보완수단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및 운영계획) 도입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
	HIV손가락절단 수술 거부 인권위 진정	- HIV 감염인을 수술 거부한 병원에 대해 장애인 차별임을 문제제기한 소송 - HIV 감염인인 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의 인정을 2019년 타 사례에 이어 재차 확인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한 HIV 감염인 차별행위 개선을 기대함, 차별행위 인정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공표한 좋은 진정사례로 선정된 소송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차별 항소심	- 시각장애인들은 모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동반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여,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 - 에버랜드의 탑승제한 행위에 전국의 놀이동산이 영향을 받아 차별행위가 이어지게 되었고, 소송을 통하여 놀이동산의 가이드라인 내용 중 시각장애인 탑승제한을 의미하는 문구 삭제 등 놀이동산 기준의 변화 선례를 이끌어냄
	경계선지능인 장애 등록 소송	-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의 시각지대로 인해 지능지수가 70을 초과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 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소송 -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공론화한 계기 - 지능지수만으로 지적장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합리함을 공론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지원과 포괄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새로운 관심을 만들어낸 소송
위헌소송	민법 제14조 위헌소송 각하	- 민법 제14조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장애를 원인으로 후견이 개시되면,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사망하지 않는 이상) 후견 종료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위헌소원을 제기 - 소송은 형식적인 부분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이후 후견심판을 담당하는 판사 대상 후견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법 제14조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제기되면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정의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감 - 현재 진행중인 한정후견 종료심판 사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활동자체가 우리 사회의 변화 의지를 일으키게 할 수 있음을 시사



성소수자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거부 취소소송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대관취소. 이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묻는 소송 -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거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최초로 법적으로 차별 인정을 받은 사례
인권/권리/이슈로의 의제화	서울서부지법 (외부성기) 수술 없이 허가 (2013')	2013 외부성기 수술 없이 허가된 최초 사례 - 여러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권리구제 폭의 확장	- 안산지원(FTM*)조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외부성기수술 없이 허가) - 광주가법(MTF*)유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외부성기수술 없이 허가) - 광주가법(MTF*)김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외부성기수술 없이 허가) *FTM : Female-to-male *MTF : Male-to-female
	박OO 등록부 정정 신청 - 2심 허가	- 비수술 FTM, 성전환수술 없이 허가한 최초 사례 - 여러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권리구제 폭의 확장	- 서울서부지법(비수술 FTM)윤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생식능력 제거 없이 허가) - 군산지원(비수술 FTM)양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생식능력 제거 없이 허가) - 광주가법(비수술 FTM)정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생식능력 제거 없이 허가) - 전주지법(비수술 FTM)최OO 등록부 정정 신청 - 허가(생식능력 제거 없이 허가)
	서울서부지법 김OO 등록부 정정 신청 - 2심 허가	- 비수술 MTF, 성전환수술 없이 허가한 최초 사례 - 여러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
권리구제 폭의 확장	영동지원(비수술 MTF)한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영동지원(비수술 MTF)한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영동지원(비수술 MTF)최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영동지원(비수술 MTF)최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영동지원(비수술 MTF)김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영동지원(비수술 MTF)김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 청주지법(비수술 MTF)유OO 등록부 정정 신청 - 1심 진행 중
	영동지원(비수술 MTF)최OO 등록부 정정 신청 - 진행 중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인정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수리발의 처분 취소, 효력정지	- 소수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시대역행적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 - 학교 내 학생인권 및 지역주민 대상의 대응을 진행

빈곤/복지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국회 사무처 홈리스 출입제지 인권위 진정	- 토론회 참석자인 홈리스의 행색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제지한 사무처의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 - 행색, 옷차림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하나의 규범이 된 현실을 지적하는 사례 - 공공의 장소임에도 홈리스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 비판과 책임을 촉구함
	서울역 노숙인 혐오조장 게시물 부착 건 인권위 진정	- 일부 사례를 이유로 거리의 노숙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특정한 게시물에 대한 문제제기 - 노숙인의 인격권 침해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회의 양극화, 대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심어준 사례 - 재발방지와 직무교육을 통해 해당 역 뿐 아니라 전체 역에 대해 또다른 사례가 등장하지 않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음
인권/권리/이슈로의 의제화	주거급여거부처분 취소소송	-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건 - 대부분의 당사자가 소송의 복잡성, 금전적&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치 않지만, 당사자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인정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장 관료적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한 항의. - 부당한 근로능력평가가 빈곤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소송 - 제도적 허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근본적 움직임의 시작을 촉구함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심혈관계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던 중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고 취업시장에 내몰려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일하다 수년 전 심혈관계 질환 치료를 위해 이식받은 인공혈관 주변 감염으로 숨진 사건
	거리노숙인 실종선고 심판청구	- 실종선고로 인해 사망 간주처리가 된 장기 홈리스가 기초수급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권리구제 소송 - 거리 노숙인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와 신분증 발급, 기초수급 급여서비스 제공까지 문제원인 해결과 후속조치까지 진행된 사례 - 문제 인식부터 어려운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지원시에 절차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기대



취약노동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아파트안내원 손해배상청구 및 휴게시간 근로 임금청구 소송	- 서비스를 받는 실질적 고객인 '입주자'가 고용계약의 서류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함 - 법적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질적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장의 책임이 있음을 선고 - 서류상 고용주가 아닌 실질적 고용주체들의 갑질 행태에 제재가 될 수 있는 사례 - 간접고용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지위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시작점
가해자 책임행동 견인	재택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심판 취소 소송	- 가해자(회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 - 가해자의 인정을 통한 소 취하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문제임을 인지하고, 향후 재발이 없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인권/권리/이슈로의 의제화	방송작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 취소소송	- 최초로 방송작가를 방송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선례가 없던 소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다툼 용기 -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지난 10년간의 가해자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이후 다수의 방송작가 근로자 인정 관련 소송 사례들의 선례로 기대
	뮤지컬 배우 간이대지급금 거부처분 취소소송	- 처음으로 법원이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근로 사각지대에 위치하던 뮤지컬 배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인한 사례 - 뮤지컬 배우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회적 관행을 탈피 - 임금체불로 권리를 침해 받는 배우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사례로 기대
	대학 시간강사 휴업수당 청구	- 강의 최소시간 보장 규정의 부재라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패소 - 최소 근로시간의 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제기 - 법적 허점에 대한 발견과 제도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 불합리한 근로계약인 부제소합의서에 대해 위법함을 인정하고 무효함을 선고 - 근로계약 시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부제소합의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당사자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 행동한 사례 - 부제소합의서의 이슈화를 통해 이미 발생한, 또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례로 기대
상시적 대응의 지속성 경험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는 해석에 따라 노조 설립이 반력 -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직화되어 사회복무요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신설 -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경험 - 당사자를 지원하는 조직(직장갑질119)이 협력하여 문제 대응 과정을 함께하는 기회 제공
	대학생현장실습 인권위 진정	- 교육적 실습의 명목으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는 대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폐지를 촉구 - 대학생 현장실습 대응모임(개인 및 대학생 단체, 시민단체의 협업)이 구성됨 -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 각 개인의 피해 상황에 대해 단체로 대응하는 경험을 통한 피해자 목소리의 집산화

국제인권/이주민인권

소송 결과유형	소송명	소송의 의의
가해자 책임의 법적 인정	불법촬영 사용자 형사사건 피해 여성 이주노동자 소송	- 여성이자 이주민, 그리고 노동자. 중첩된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 유죄판결을 받은 소송 - 피해 당사자의 상황상 언어 소통의 어려움 뿐 아니라 생활을 이유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소송으로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제도보완의 시급성을 알리는 선례가 된 소송
인권/권리/이슈로의 의제화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인권침해 진정	-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사건 피해자의 구금 해제를 위해 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을 이끌어낸 소송 - 인권위의 본 결정이 선례가 되어 사업장 변경제한 위헌소원을 비롯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 *사업장 변경제한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횡수를 제한하는 조항
	선원 이주노동자 재해보상급여일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한국 어선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보상금을 한국인 선원 적용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게 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또한 차별적 재해보상급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잘 드러나지 못했던 소수자 중 소수자인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가시화한 사건 - 소송 진행 중 시민대상 탄원서 수집 등 캠페인, 기자회견을 병행하여 사회로 하여금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일어나게끔 함
상시적 대응의 지속성 경험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위헌소원	-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주거조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 - 이주민권단체를 비롯하여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당사자 및 활동 단체의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 나아감
	러시아 정치적 의견 난민신청자 지원 소송	- 소수자난민네트워크내 지원 사건 중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소송 (난민 인정 건수 : 20건/10,000건) - 난민 인정 1% 현실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승소 결과를 통해 소송을 지원한 소수자난민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피해당사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도움을 얻는 중요한 경험의 포인트가 된 소송
위헌소송 + 제도개선	출입국 관리법 63조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소송	- 외국인에 대해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헌 소송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에서부터 적극적 서명 캠페인을 진행, 위헌 결정되었고 이주민 구금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됨 - 이후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까지 진행하며 위헌인정에 더불어 제도개선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 외국인 건설근로자 유족이 퇴직공제 금액 건설근로자 공제 요청을 하였으나 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하여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유족이라는 사유로 거절한 사례에 대해 위헌 소송 진행 - 개별소송에서 시작하여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의 위헌 여부 판결을 제기한 소송 - 궁극적 제도개선이 일어남과 동시에 상대방이 소송을 포기하여 개별 소송 역시 승소로 이끔

부록 2: 인터뷰

Interview: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 사회혁신조직의 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SNS, 뉴스레터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는 사회혁신조직 안과 밖에서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기획하며 만났던 혁신가들의 임팩트에 대한 생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Behind 'The Impact Report'

인터뷰이 : 공감 김지림 변호사

Q.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조직의 임팩트 리포트 제작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공감의 임팩트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

공감은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소송 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실태조사, 연구 등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과연 성과 측정이 가능할까?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20년간 이어온 우리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수치화하여 그 결과물을 향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Q.

저희도 공감의 성과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어요. 20년간 애써오신 만큼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쌓여왔기에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가며 공감의 임팩트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임팩트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조직에 대한 내부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공감에 맞는 측정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해 본 네트워크 분류법이나 팀별 성과를 정리하는 방식들을 통해 20년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익활동 중개, 교육 활동 분야에서의 주 활동인 자원활동가 제도에 대하여 막연한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가자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보며 우리의 활동에 대해 더 구체적이게 알게 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20주년 자료집에도 유용하게 쓰였고, 내부적으로도 수치화 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록과 축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가능한 매 년 데이터를 모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Q.

공감의 20주년을 따라가면서 성과를 정리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모든 노력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공감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기부회원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의 활동을 정리한 임팩트 리포트를 통해 공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회원분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공감의 성과와 노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은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공감의 임팩트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며, 변화의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경험은 공감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가 공감이 임팩트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되어, 더 깊고 풍성한 임팩트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후원 및 조직 안내

“공감과 함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 서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03058)

대표전화 02-3675-7740

대표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kpil.org